|  |  |
| --- | --- |
|  | **아산정책연구원** |

**보도자료**

|  |
| --- |
| **“아산정책연구원 정기 여론조사”**  **주최: 아산정책연구원** |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적 평가 44.4%, 부정적 평가 46.7%***
* ***차기 대선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 35.4%, 한나라당 아닌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 36.8%***
*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0.0%, 민주당 17.9%, 민주노동당 3.1%***
* ***이번 조사는 RDD에 의한 무작위 확률 샘플링 사용***

**기획배경**

『아산정책연구원(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IPS) 』은 2011년 1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도 평가 및 각종 정치관련 지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여론 조사 기관인 『리서치 & 리서치(Research &Research)』에 의뢰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도와 차기 대선 지지 정당 및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과 정당들의 수행능력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번 『아산정책연구원』과 『리서치 & 리서치』에서 기획한 여론 조사는 조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 조사들이 KT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표본을 모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Random Digit Dialing(RDD) 방식을 도입하여 그 정확도를 높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처음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 후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의 조사들이 이를 포기하고 다른 응답 후보자로 대체하곤 했는데,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5회까지 재통화를 시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기획 당시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해놓은 표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개요와 목적**

이번 조사는 1월11일부터 1월 17일까지 만 6일간 조사했으며,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도에 +/-3.1%의 오차범위이다.

총 유효통화수 대비 조사 완료수로 계산한 응답률은 22.0%이다.

유효통화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전화 수화기를 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화를 받은 사람중 약 4분의 1이 실제로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특징인 RDD방법에 따라 번호를 생성하고 조사한 결과, 최종 조사치인 1003개의 샘플중 587개의 번호가 전화번호부 비등재 번호로서, 58.5%가 기존 조사에서는 표집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3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추후층화 조정에 의해 960명 기준 조사결과로 발표된다.

**쟁점**

다음은 이번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적 평가 44.4%, 부정적 평가 46.7%**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6.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세대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20대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32.3%인데 반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63.2%에 달하였고, 30대 역시 긍정적 평가가 27.6%, 부정적 평가가 63.8%로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긍정적인 평가가 62.5%나 되었고 부정적인 평가는 21.7%에 그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학력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층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보다 높았다. (긍정적 평가: 55.7%, 부정적 평가: 25.9%)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층은 37.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과반이 넘는 56.8% 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성장 분야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얻었으며 (41.2%),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남북관계 및 안보 분야였다. (21.7%)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발전: 17.7%,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25.5%, 남북관계 및 안보: 21.6%, 소득의 재분배 등 복지: 20.0%)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 평가 그룹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분야가 부정적 평가 그룹에게는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이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세대별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었다. 20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잘 못하는 분야로 꼽은 반면 (27.9%), 30대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을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분야로 평가하였다. (32%) 40대는 소득의 재분배와 같은 복지 분야에서 가장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9.1%)

**차기 대선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 35.4%, 한나라당 아닌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 36.8%**

기존의 연구들은 현재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가상대결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율을 살펴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방식을 지양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거론하지 않은 채,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 후보’에 대한 대결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가상대결을 통해 대선을 점쳐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선과 같이 규모가 크고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보다도 정당의 브랜드네임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선에서는 선거의 특성상 거대정당으로의 표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당의 후보로 유력시되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명하여 지지도를 살펴보는 것보다, 어느 정당의 후보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조사 결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5.4%,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6.8%로,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응답률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이는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수치이다.)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27.8%였다. 이는 현재 다수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대세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과 그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야당 측에서 뚜렷하게 대항마로 나설만한 정치인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대선시 후보 단일화와 같은 야당간의 연합전선이 구축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기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대선 후보 및 정당 지지 질문에서도 역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큰 연령별 편차가 나타났다. 20, 30, 40대 응답자들은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20대: 32.4% - 한나라당 후보, 49.8% - 야당 후보; 30대: 26.8% - 한나라당 후보, 43.9% - 야당 후보; 40대: 30.5% - 한나라당 후보, 40.9% - 야당 후보) 특히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경우 ‘잘 모르겠다/무응답’ 답변율이 17.7% 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아, 이미 투표할 정당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50대: 40.4% - 한나라당 후보, 33.8% - 야당 후보; 60대 이상: 47.9% - 한나라당 후보, 15.1% - 야당 후보)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모르겠다/무응답’ 비율이 36.9% 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자들의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높았으며 (38.1%) 대학 이상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은 44.4%의 비율로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0.0%, 민주당 17.9%, 민주노동당 3.1%**

정당지지도 측면에서는 한나라당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층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와 30대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각각 18.9%, 18.8%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집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3.7%와 19.3% 로 한나라당 지지율보다 약간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47.3%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하여(민주당: 10.2%)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 (43.4%) 이는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혹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혹시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61.5%가 없다고 대답하여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 중 가장 강한 정당 충성도를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경우는 지지자들 중 38%만이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답함으로써, 한나라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정당 충성도를 보여주었으며, 한나라당보다는 낮지만 민주 노동당 지지자들 역시 48.9%가 지지정당을 바꾸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정당충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 국가 경제 상황 및 안보 상황 평가: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아**

현재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28.4% 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무려 61.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았다. (긍정적: 30.4%, 부정적: 51.2%) 다만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가 안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8.6%의 응답자들만이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좋은 편이라 응답하였고 무려 70.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안보 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근래 잇따른 북한과의 긴장상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현안: 일자리 창출 32.2%, 남북관계 및 안보 31.7%, 소득 재분배 16.5% 순**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남북관계 및 안보 문제가 가장 큰 두 가지 현안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현안은 소득 재분배였다. 이 역시 세대별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현안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와 30대의 경우는 남북관계 및 안보 문제가, 40, 50, 60대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변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정당으로는 세대와 학력 등을 막론하고 한나라당이 꼽혔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여기는 경제 분야에 있어 이슈 선점이 확실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선거가 경제 프레임으로 짜여 질 경우 한나라당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및 안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정당으로도 역시 한나라당이 꼽혔다. 다만 이는 세대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20대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남북 관계와 안보를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한나라당: 27.7%, 민주당: 34.6%)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이슈 선점에 뒤지지 않은 분야는 소득 재분배였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소득 재분배를 잘 할 것이라 본 응답자가 23.2% 였고 민주당이 달 할 것이라 본 응답자가 23.5%로 사실상 비슷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30, 40대의 경우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소득 재분배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 보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은 한나라당이 소득 재분배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이 민주당보다 많았다. (20대: 18.1% - 한나라당, 29.6% - 민주당; 30대: 17.7% - 한나라당, 23% - 민주당; 40대: 19.8% - 한나라당, 29% - 민주당; 50대: 31.1% - 한나라당, 23.4% - 민주당; 60대 이상: 30.9% - 한나라당, 11.9% - 민주당)

민주주의의 발전에 잘 기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비율로 선택되었고 (한나라당: 23.7%, 민주당: 23.9%), 교육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약간 앞섰다. (한나라당: 26.4%, 민주당: 20%)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이슈에 있어, 현안을 특별히 잘 다루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5가지 이슈 평균 40%) 국민들이 중요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정당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없다고 대답한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정당들이 현안 해결 능력에 있어서 무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